

나주시,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확충 탄소중립 실현

국산 신모델 10대 도입 총 24대 운영
출입구 계단 없애 교통약자 편의 증대
동강 100번 등 지선 노선 집중 배치
운수업체 지속 협의 추가 도입 논의

나주시가 전남 최초로 국산 전기버스 신형 모델을 도입해 탄소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14대를 운행했으며 지난 5일부터 신형 전기 저상버스 10대를 추가 도입해 모두 24대로 늘어난다.

5일부터 운행에 들어갈 42인승 전기 저상버스는 국내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KGM커머셜의 'KGC090' 모델이며 정부 인증 무공해 차량으로 등록된 지 약 2주 만에 나주시가 최초로 도입하는 것.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배리어프리(무장애)' 버스로 이들 버스는 '영산포-나

주역-빛가람동-남평'을 운행하는 급행1번 및 '나주터미널-동강'을 운행하는 동강100번 등 지선 노선에 주로 배치된다.

지난해 1월부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신규버스에 대해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었으며 나주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6%로 확대된다.

나주시는 운수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저상버스 도입 시 기존 CNG(천연가스) 버스가 아닌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를 대거 도입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이번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도입으로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앞장서고 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에도 기여하게 됐다.

전기버스는 진동과 소음이 거의 없고 쾌적하고 편안한 승차감 등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도 향상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의 도입·운영으로 시민과 교통약자는 물론 나주를 찾는 관광객에



나주시가 지난 5일부터 신형 전기 저상버스 10대를 추가 도입해 탄소중립 실현에 주력한다. 나주시 제공

게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를 더욱 늘려나가는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인재육성 장학기금 300만원 기탁
나주금성회, 후배 양성 기여

재경 나주향우 모임인 '나주금성회'는 지난 5일 나주시청 시장실에서 나주교육진흥재단에 인재육성 장학기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기탁식에는 운병태 나주시장, 나주금성회 백기중 회장, 이병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백기중 나주금성회장은 "나주 미래를 책임질 고향 후배들의 학업 정진을 위해 장학기금을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재경향우 회원들과 고향 나주 발전과 후배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고향 나주 후배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꾸준히 기탁해 준 재경 나주금성회에 감사드린다"며 "장학금은 나주 교육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 결성된 나주금성회는 올해까지 총 1200만원의 인재육성기금을 나주교육진흥재단에 기탁했으며 나주배, 나주쌀 등 고향 농·특산물 판로 개척, 어려움을 겪는 고향 사람들을 위한 성금 기탁 등 다양한 애향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나주=조대봉 기자

함평축협, 인재양성기금 기탁 함평군에 1147만원 후원

함평군은 11일 함평축협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기금 1147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함평축협은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인재양성기금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김영주 함평축협 조합장은 "우리 함평축협 조합원들의 뜻을 담아 인재양성기금에 기탁금을 전달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우리 함평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인재들이 성장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축협에서 이렇게 매년 지역 사랑을 실천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기탁해 주신 인재양성기금은 함평군 지역 학생들이 꿈을 향해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지난 6일 화순군 북면중학교 학생들이 급식실에서 김장 김치를 만들고 있다. 이날 만들어진 김치 44통은 마을이장단에 기부 됐다. 화순군 제공

화순북면중학교, 김장 체험 나눔 활동

화순군 북면중학교는 지난 6일 교과와 연계한 활동으로 전체 학생 11명과 교직원 11명이 '김장하기' 체험을 급식실에서 실시했다.

11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지난해 '사제 동행 고추장 만들기'에 이은 '사제 동행 김장하기' 체험을 계획함으로

써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이웃 사랑 및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김장 김치를 직접 담가 관내 이장단 회의에 김치 44통을 직접 전달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최광희 북면중학교장은 "교육공동체와 지역 사회가 하나 된 날"이라며 "모두가 협력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선 백아면장은 "직접 담근 소중한 김치를 기부해 주신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리며 학생들의 정성 어린 마음을 담아서 22개 마을마다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영광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1만2870건... 16일부터 납부

영광군은 2기분 자동차세 1만2870건에 대해 20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2회(6월·12월) 부과하는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12월1일을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부과한다.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ARS전화(142211) 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 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독촉고지서가 발송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화순군
2024 성탄문화축제
14일 오후 2시 남산공원에서

화순군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화순읍 남산공원에서 '2024년 성탄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2024년 성탄문화축제는 사랑,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화순군이 주최하고 화순군기독교협의회가 주관한다.

행사는 성탄 카드 만들기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과 오케스트라·합창 등 다채로운 음악공연, 먹거리가 더해져 군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다.

강삼영 화순군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성탄의 기쁨과 축복을 나누고 가족·친구 등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따뜻한 추억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함평군 먹거리위원회, 경남 합천군 선진지 견학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 구축

함평군 먹거리위원회는 지역 농업과 먹거리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경남 합천군을 방문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견학은 함평군의 농업 혁신 및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먹거리위원회는 합천군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을 직접 살펴보고 이를 함평군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합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통해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먹거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실감하



함평군먹거리위원회 회원들은 지난 3~4일 지역 농업과 먹거리 시스템 발전을 위해 경남 합천군 선진지 견학을 시행했다. 함평군 제공

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먹거리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방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함평군 먹거리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선진 사례 학습을 통해 지역 농업 혁신과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천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찬득 함평군 먹거리위원회 부위원장

은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지역 농업과 먹거리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함평군에서도 농민 소득 증대와 지역 소비 촉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진일보
@ji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